

호국보훈의 달 특집 | '6·25 전쟁영웅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1892. 2 ~ 1964. 6) 프랑스 장군

“계급보다 중요한 건 자유에 대한 신념이다”



랄프 몽클라르 장군은 프랑스 육군 소속으로, 6·25전쟁 시 파병된 유엔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인물이다. 몽클라르 장군은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6·25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킨 2대 전투로 꼽히고 있는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유엔군은 남하하는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시키고 다시 북진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몽클라르 장군은 1892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라울 샤를 마그랭 베르네레(Raoul Charles Margrin-Vemerey)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9세가 되던 해인 1900년 프랑스로 이민해 1914년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몽클라르는 같은 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육군 제14단의 보병 60연대 소대장으로 참전했다.

소대장 부임 이틀 만에 중대장이 전사해 중대를 지휘하게 된 몽클라르는 주도한 작전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중대장으로서 계속 임무를 수

행했으며, 1916년 대위로 진급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프랑스 외인 보병연대 등에서 근무하며 영웅적인 무훈을 계속 이어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 프랑스군의 유일한 승리였던 나르비크(노르웨이 북부의 항구도시) 전투에 참전했던 몽클라르는 나치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항복이 임박하자, 영국으로 망명한 샤를 드골의 자유프랑스군에 가담했다. 이 시기부터 독일군의 보복을 우려해 ‘랄프 몽클라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레지스탕스 활동을 벌여 나갔다. 제1·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몽클라르는 어느덧 3성 장군이 되었다.

프랑스군 대대를 이끌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중장에서 중령으로 내려

1950년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역시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유엔군에 참여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알제리 등에서의 전쟁으로 파견 병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위급 장교가 포함된 10여 명의 사찰단만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군대 파견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 중 한 명인 몽클라르 장군은 막스 르젠 프랑스 국방차관을 설득해 기존부대가 아닌 자신이 모병(募兵)한 군인들로 새 부대를 창설해 본인이 그 부대의 대대장직을 맡겠다고 했다.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르젠 차관은 미국의 대대는 육군 중령이 지휘하는데 몽클라르 중장이 대대장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몽클라르는 장군은 “육군 중령이라도 좋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제가 최초의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금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지평리전투 승리로 이끌고 북진 재개 발판 마련해

결국 제의가 받아들여져 몽클라르 대대는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 비록 몽클라르가 한국전 참전 당시 계급은 중령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와 연합군 장병들은 그의 이러한 참전 내막을 알고 전쟁기간 동안 ‘몽클라르 장군’으로 불렸다.

지원병단으로 구성된 프랑스 대대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인 1951년 1월 7일부터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되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강력한 공산군의 공격에 맞서 방어전지를 고수하는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양평 지평리에서 펼쳐진 지평리 전투에서는 미 제2

사단 제23연대의 일원으로 험난한 지형과 살을 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적의 모든 공격을 물리침으로써 적의 대공세를 분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 전투를 포함해 원주 전투, 쌍굴터널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에서 미 제23연대와 함께 혈투를 벌여 중공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합군이 대반격을 할 수 있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몽클라르 장군은 파병 2진과 교대하여 1951년 12월 지휘권을 인계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몽클라르 장군은 1952년 5월 29일 프랑스 육군 중장으로 정년 퇴역했으며, 196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작고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몽클라르 장군의 사위인 베르나르 뒤푸르 프랑스 전 육군 대령이 몽클라르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자유에 대한 신념을 프랑스 사회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

이태희 | KFF뉴스 기자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5월 24일 프랑스 참전용사와 함께 파리 개선문 광장 무명용사묘를 참배하고 프랑스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남하하는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전투다.

1950년 10월 중공군은 전세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참전했다. 인해전술로 무장한 중공군 앞에 연합군은 청천강 전투, 장진호 전투 등에서 잇달아 패배하고 서울도 중공군에게 다시 내주는 등 후퇴의 후퇴를 거듭했다. 지평리를 뺏기면 부산까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서자,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강원 횡성 삼마치 고개와 경기 양평군 지평리 일대를 파상적으로 공격했다.

1951년 2월 13일 밤이 되자 중공군이 피리와 나팔소리를 불며 첫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몽클라르 장군은 병사들의 동요를 방지하고자 수동식 사이렌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방법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2월 14일 저녁 무렵 연합군은 다시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버텨내야 했다. 중공군의 병력도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 배로 늘어났다. 전투는 중공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총탄이 떨어지자 몽클라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대대는 연합군과 함께 백병전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무렵 아군 지역 후방에서는 미군 1기병사단 5기병연대를 주축으로 지원부대가 편성되고 있었다. 2월 15일 연합군은 아군의 전차부대 및 항공지원과 함께 중공군의 공세를 결국 무너뜨렸다. 몽클라르 장군의 지략과 용맹한 활약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다.

